스포츠에도 인생도리 있다

박태원 교수가 쓰는 〈4〉

불교로 보는 인생

박찬호의 마음공부

인간은, 아니 오직 인간만이 스포츠에 몰입한다. 게임과 기록 경신 속에서 인간만이 높은 성취감과 보람을 맛본다. 눈길 한번 안 가는 풀 한 포기, 들꽃 한 송이에도 우주의 도리와 면모가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알리는 부처님 연기법(緣起法) 그 화엄(華嚴)의 소식에 비추어 보건대, 스포츠 게임 한 장면 한 장면에는 인생의 모든 사연이 알알이 담겨 있을 터. 게임 속에서 삶의 도리를 읽기에, 기록 경신의 과정에서 인생의 법칙과 지혜를 터득하기에, 인간은 스포츠에 열광하며 환호한다.

자타가 인정하는 지구촌의 맏형 미국. 그 잘 나가는 미국인들의 시선을 거의 일년 내내 붙들어 놓는 것이 메이저 리그다. 그러니 메이저 리그의 스타가 미국인들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그 메이저 리그의 확실한 스타로 자리 잡은 박찬호이기에, 그를 향한 한국인들의 갈채와 자랑스러운 눈길은 각별하다. 미국이라면 괜히 주눅들곤 하는 한국인들이기에, 찬호가 뿌리는 공이 내로라하는 큰 몸집의 미국의 야구 선수들을 헛방망이 돌리게 할 때마다 오래된 체증 풀리는 듯한 쾌감을 맛보곤 한단다. 일종의 열등감의 표현이요, 속 좁은 민족주의적 감상이라고 힐난해도 좋다. 부당하게 짓눌리던 자존심이 찬호의 공 하나 하나에 기를 편다는 범인의 말들에 굳이 토를 달고 싶지는 않다. 얼핏 유치해 보이는 그들의 감정 밑바닥에는 한반도 근대사의 그 모진 우여곡절이 켜켜이 쌓여 있음을 어찌 무심히 간과하랴.

그런데 인간 박찬호의 내면이 새삼 눈길을 끈다. 그 텃세 센 미국 본토 야구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정상을 향해 힘차게 정진하는 그의 강인한 정신력과 불굴의 투지는 진작부터 인상적이었다. 무언가 분명 크게 남다른 구석이 있지 않고는 그런 성취가 불가능한 법. 얼마 전, 궁금했던 그의 속내를 엿볼 수 있는 정보를 접하고는 '아하! 역시 그랬구나!'며 고개를 끄떡거렸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리고 필요한 건 정신과 마음이지요. 야구는 정신력이 중요한 정신적 게임이니까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고, 바른 생각은 바른 행동을 만들지요. 바른 생각이란 긍정적인 생각+자신감이지요. 긍정적인 생각과 자신감은 늘 즐거움을 만들 듯이 야구에서는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지요. 자신감! … 상대 타자를 아웃시켜야 된다는 자신감도 좋지만, 근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지요. 경기 전 타자에 대해 연구하다 보면 어떤 공을 던져야 할지 알게 되고, 마운드에 올라서면 오로지 어떤 공을 던질까 생각하고, 구질이 결정되면 오로지 1구만 생각해 1구에 집중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요. 사생활의 안정도 절대적이지요. 인간의 근본은 좋은 가정, 좋은 사생활의 습관에서 얻어지고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편안한 마음과 육체는 안정된 생활에서 얻을 수 있고, 그러면서 만사에 대한 안목, 정견(正見)이 수립된다. 이 정견이 갖추어지면 자신감이 생긴다. 길과 그 목적지에 대한 만족과 확신에서 오는 자기 긍정이다. 발걸음이 당당하고 경쾌해진다. 삶이 즐거워진다.

긍정적 생각·자신감이 승리비결

'지금 바로 여기' 집중이 곧 참선

바른 생각과 자기 긍정은 올바른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올바른 언어 생활(正語)·올바른 행동(正業)·올바른 직업 생활(正命)이라야 정견과 자신감이 유지되고 힘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참선(正念)이 순조로워진다. 이미 지나간 과거사나 오지 않은 앞일에 생각이 매여 '지금 바로 여기(卽今)'를 놓쳐버리면 영락없는 중생. 시간과 공간의 이런저런 바깥 경계로 휘말려 나가지 않고 '지금 바로 여기'의 마음 상태를 챙겨 가는 것은 해탈을 향한 참선 수행의 핵심 포인트. 오직 지금의 호흡, 지금의 걸음, 지금의 동작, 지금의 느낌과 마음 씀씀이로 돌아와 '동요 없는 현재'를 살아간다.

좋은 사생활로 뒷받침되는 바른 생각과 자신감으로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1구'에만 집중한다는 박찬호. 그는 실로 훌륭한 불교 수행인이다. 부디 지금의 마음 공부를 계속 유지하시길. 그대의 목표인 '최고의 1구'는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바로 지금의 마음(무집착의 현재심)'을 성취할 때 이루어지리다.

울산대 철학과
(twpark@uou.ulsan.ac.kr)

"고통은 업보의 결과 걱정보다 받아들이자"

법회중계

천중사 정기법회

〈2000년 9월 3일〉

운산 스님
〈천중사 주지〉

지나친 욕심 버리고 반성과 참회 따를때 고통·근심 사라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자면 고통이 전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행복한 사람일지라도 언젠가 한때는 고통을 받기 마련인 것입니다. 어디 사는 것뿐이겠습니까. 태어나고 죽는 것까지가 모두 고통입니다. 고통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괴로움의 바다, 고해(苦海)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은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근심과 걱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고통보다 이 근심과 걱정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심과 걱정이 고통보다 사람을 더 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달마대사는 이입사행론(二入四行論)에서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은 만일 고통을 만나더라도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逢苦不憂)"고 했습니다. 어떠한 고통을 받게 되더라도 근심하고 걱정하기보다는 그것을 조용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달마는 그래야 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통은 자신의 업보에서 오는 것이다. 자신이 지어서 받는 결과이기 때문에 자기가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달마대사의 이 말씀은 바로 인과의 도리를 설명한 것입니다. 즉 내가 지은 인연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고통이니,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이며 그것을 근심하거나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달마는 또 이러한 충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닥쳐온 고통을 감수할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참회도 따라야 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인과나 업보에 의해 온 것이라면 그 인연과 업보에 대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참회하여 다시는 그런 결과를 받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다짐과 각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에 대한 반성이고 참회입니다.

이와 같이 고통에 대한 반성과 참회가 있을 때 고통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며 그에 따라 근심 걱정도 저절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고통은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엇보다 욕심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보면 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욕심으로부터 걱정이 생기고 욕심으로부터 두려움이 생긴다. 욕심 없는 곳에 걱정 없나니 또 어디에서 두려움이 있겠는가"(貪欲生憂 貪欲生畏 無所貪欲 何憂何畏).

역시 고통과 근심 그리고 걱정의 원인은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을 받지 않고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욕심부터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욕심이 있는 한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고 고통이 있는 한 우리에게서 근심과 걱정이 떠날 날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욕심 가운데는 사욕이나 이기심이 아닌 선의의 욕심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의의 욕심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능력과 한계와 분수를 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든 지나치게 되면 예외 없이 고통이 따라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이 없는 그리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보람있는 인생을 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역시 욕심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사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고 근심과 걱정, 원망만 할 일이 아닙니다. 그 고통의 원인과 뿌리를 알고 그에 대한 반성과 참회를 함으로써 그것을 조용히 감수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괴로움에 빠지지 않고 안락할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리=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리오 그란데 통해 북미불교 유입

세계의 불교학 〈26〉 멕시코 ①

달라이 라마 방문후 티베트 불교 확산

수행센터 20여곳…참선·명상공부 열기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을 가르는 리오 그란데 지역. 1979년 티베트의 종교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이 지역을 다녀간 이후, 이 지역은 불교가 북미에서 남미로 유입되는 교두보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갔다. 20여 년 간 이 곳에서 개원된 불교교육·수행센터는 게규 쉐펜 티베트 불교 연구소, 타라 만달라 센터, 산타페 위빠사나 등 20여 개를 넘고 있다는 점만 보아도, 이 같은 사실을 잘 반영해 준다.

지난해 말 트라이시클과 인터뷰를 했던 원주민 지도자 구아다루페 초사(Guadalup Chosa)는 "리오 그란데 지역은 거대한 계곡과 사막이 이어지면서 멕시코의 시에라 델 칼멘 부근을 가로지르고 있는데, '마음 안의 자신'을 찾는 순례자들이 이 곳으로 이주해 오면서 이 지역 사람들의 마음에는 적잖은 불심이 있다"며 수십 년간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 곳에서 지역 사람들에게 초발심의 계기를 만들어 주는 데 주력하고 있는 불교교육센터를 꼽자면 단연 '게규 쉐펜 티베트 불교 연구소'다. 1979년 달라이 라마 방문 이후 티베트 불교의 주요 종파인 게규파에서 설립한 교육의 장인 이 연구소는 티베트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수행을 가르치고 있다.

현재 이 연구소에 살고 있는 8명의 티베트 스님은 7시부터 40분간 아침기도, 8시 공양, 8시30분부터 11시까지 명상, 11시부터 12시까지 경전 강독, 12시 점심공양, 12시30분부터 14시까지 휴식, 14시부터 17시까지 티베트인과 원주민 어학·종교 교육, 19시부터 저녁식사 등으로 하루를 보낸다. 티베트 스님들은 이 중에서 명상과 경전 강독 그리고 종교 교육 시간에 일반인들도 참석시킨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데, 리오 그란데 지역민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 수행자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전 연구 등이 가능하겠지만, 일반인들 특히 리오 그란데 지역 주민과 같이 분주한 생활 속에서 전통적인 교학를 공부하기는 어려운 탓이다.

이 지역의 불교세를 집중 보도한 트라이시클 기사를 보면, 실제로 이 지역 사람들은 경전 읽기보다는 참선과 명상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교리적 지식보다 수행과 실천을 중시하고 있다. 즉 율장의 이해보다 실제적인 계행의 생활화를 중시하고 말과 앎보다 행동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1979년 리오 그란데를 방문한 달라이 라마가 이곳 원주민 지도자 구아다루페 초사를 만나는 모습.

리오 그란데 원주민의 민속을 연구하고 있는 프랭크 코롬(산타페세계민속박물관 큐레이터) 박사는 "티베트 스님들은 이제 나라를 잃은 수행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이 지역의 주민입니다"며 "정신을 좇는 이 지역의 문화와 티베트 불교의 정신이 서로 어우러진 탓도 있겠지만, 20여 개의 교육·명상 센터에서 실시하는 '열린 명상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 깊숙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지리적으로 리오 그란데 지역은 북미와 남미를 잇는 관문이다. 따라서 이 지역 불교세는 멕시코, 브라질, 베네주엘라, 파라과이 등의 불법 포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리오 그란데의 원주민의 하나인 호피족과 티베트 불교와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는 문화인류학자 조안 프라이스 박사는 "호피족 등 남미 원주민의 문화는 티베트와 같이 세계의 보편적인 문화와는 전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며 "이처럼 '문화적 외계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두 문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고 예측해, 가까운 미래에 남미에서 시작될 '불교 열풍'을 짐작케 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나라가 어려울때(國難) 불교전통(佛敎傳統)을 이어, 정토세계(淨土世界)를 열자

제6차 전국 염불만일회 2000년도

금강산 건봉사 가을 성지대회 공고

△ 등공탑—염불만일회에 동참하신 서른 한 분 스님의 육신 등공부도탑

전국 염불만일회에서는 2000년도 가을 아미타 염불성지대회를 우리나라 최북단 강원도 고성군 건봉사에서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전국에 계신 염불만일회 회원과 불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일 시 : 2000년 10월 1일 ~ 2일(1박 2일)
◇ 장 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 건봉사
◇ 내 용 : 사리친견 염불정진 및 등공대 참배, 아미타춤 헌공
◇ 신청대상 : 개인, 단체, 사찰, 가족단위
◇ 참 가 비 : 25,000원
◇ 신청방법 : 전화신청 후 은행계좌에 입금
◇ 교 통 편 : 개인별 건봉사 도착

서울·경기지역 출발 안내
○ 출발장소 : 서울 조계사 앞(안국동 로터리)
○ 출발시간 : 2000년 10월 1일 오전 6시
○ 교 통 편 : 관광버스(단, 동참자는 참가비·교통비 포함 50,000원을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염불만일회 회원 모집
▶ 회원자격 : 염불수행을 원하는 모든 분
▶ 회원대상 : 사찰, 단체, 개인별로 가입
▶ 회원회비 : 가입비 2만원(매년회비 1만원)
▶ 가입방법 : 전화 및 우편(사무국 : 02)732-1215~7)

회원이 되시면
▶ 아미타불의 수행방법을 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염불만일회 소식을 가정에서 통신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염불일일기도 수첩 보내드림)
▶ 전국 대도시별로 회원 관리 혜택이 주어집니다.
▶ 평생동안 염불만일회 회원이 됩니다.
▶ 법보신문에 매주 고유번호와 성명이 게재됩니다.

회원가입 은행 입금계좌 (예금주 : 염불만일회)
국민은행:023-21-0667-309 조흥은행:390-04-249351
농 협:053-02-128104 우 체 국:010041-02-209333
외 환:173-18-10454-9

全國念佛萬日會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 (02)732-1215~7 FAX (02)732-1207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